

FTA 확대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Plans of Global Value Chain according to the FTA's Enlargement

박 명 섭 ** Myong-Sop Pak
한 낙 현 *** Nak-Hyun Han
김 은 채 **** Eun-Chae Kim

목 차

I. 서론	IV. 중소기업의 GVC 활성화 방안
II. FTA의 개요와 GVC의 선행연구	V. 결론
III. GVC의 구조와 확대배경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WTO·DDA 협상의 난항으로 FTA가 무역관련 규칙제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이점의 하나는 GVC의 확대를 활성화시키는 잠재성에 있다. FTA는 GVC의 발전을 위해 대개의 필요한 정책상의 조치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FTA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 GVC 운영자에게 무역장벽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FTA는 즉시 관세를 경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관이나 무역원활화 조치를 가속화함으로써 비용을 경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5150)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제1저자

*** 경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교신저자

****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공동저자

감할 수 있다. 대개의 선도적 FTA에서는 상대국에 GVC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상의 조화와 같은 새로운 특성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최근 WTO와 OECD 등에서도 GVC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어, 무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 확대에 따른 GVC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근 GVC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WTO · DDA, 자유무역협정, 글로벌 가치사슬, 글로벌화, 정책상의 조치

I. 서론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 GVC)에 대한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무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OECD, WTO, UNCTAD, 2013). GVC로 인한 글로벌 무역패러다임의 변화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늘날 기업들은 GVC 상의 환경에 따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물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으며, 세계무역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첫째, 자국기업들이 GVC 상에서 어떠한 부가가치를 생성할지의 문제, 둘째, 중소기업의 국제화에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지의 문제이다. GVC는 중소기업의 경우 거시적 의미에서는 어느 한 국가에 속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미시적 관점에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전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준호, 송창식, 이춘우, 2013).

한편 201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최근 역내 12개 회원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APEC 정상회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아시아태평양 역내 통합 노력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강민지, 2015). 여기에는 TPP나 RCEP, FTAAP 등을 미·중간 대립 이슈가 아닌 경제통합 및 경제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APEC 경제통합론과 WTO 다자무역체제 강화 관점은 아시아태평양지역내 메가 FTA(Mega FTA) 논의가 서로 얽히고설켜어 대상국별·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누들 볼 효과(Noodle bowl effect))(Bhagwati, 1995 ; Baldwin, 2006)가 확산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반영되었다(방호경, 이서영, 2015).

한편 GVC 확대는 기술발전과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GVC의 형성은 기업간 경쟁 증가, 운송수단 및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ICT)의 발달, 신흥개도국 내 저비용 공급업체의 등장, 무역자유화로 인한 기업전략의 변화 등에 기인하며, 향후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글로벌 무역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다(OECD, 2007a).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환경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며, 한편 정부도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가진 중소기업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GVC의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무역과 기업전략의 새로운 시각과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각국은 자국 기업과 산업이 GVC 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역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다(OECD, 2007b). GVC 확대로 인해 선진국은 연구개발(R&D), 디자인 및 이들의 융복합 등 GVC 상에서 고부가가치의 창출 산업이 특화·발전되지만, 저개발국은 제조·생산 분야의 저부가가치사슬이 특화되는 추세가 고착화되게 된다. 이는 국내 대기업의 특정 GVC의 지배형태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GVC 내 어떤 사슬에 편입될지가 중요함을 의미한다(이준호, 2013).

이는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패러다임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진 ‘APEC 가치사슬’의 구축과 관련하여 역내기업간 협력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전략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정책을 GVC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을 GVC내 고부가가치사슬에 진입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GVC의 이해에 기반을 두고 FTA 확대에 따른 국내 기업의 GVC 편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최근 GVC의 연구동향과 지배구조 등 GVC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그리고 GVC 편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II. FTA의 개요와 GVC의 선행연구

1. FTA의 개요

1) 지역무역협정의 유형과 FTA

WTO·DDA 협상의 부진으로 인해 200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메가 FTA 협상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WTO 체제하에서 2000년 이후 통상 관련 논의는 실질적으로 진전을 보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따라서 2014년 말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도 WTO 논의의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은 1995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기점으로 FTA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과의 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TTIP)(28개국)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의 협상 등 현재 메가 FTA가 확대되고 있다.

TPP는 예외품목이 없으며 100% 자유화를 실현하는 질이 높은 FTA이다. 그리고 TPP는 2006년 발효된 4개국(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FTA를 모태로 하여 출발한 후 이들 국가에 2008년 미국, 호주, 페루 등이 참여하고, 2013년 일본이 합류하여 총 12개국이 참여하여 2015년 10월에 타결된 후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에서 12개국이 공식 서명하였다(박정준, 2016).

2009년에 뉴질랜드·싱가포르 FTA(ANZSCEP)가 발효되었는데, TPP는 이것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ANZSCEP의 주요 내용은 재화와 서비스 교역, 투자와 정부지원 등에 관한 것이다.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추고 진입 기회를 넓힘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Singapore Government, 2014). ANZSCEP은 전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화의 수준이 높은 FTA이다. 싱가포르·뉴질랜드 간에는 ANZSCEP과 TPP가 병존하고 있어 어느 쪽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경제동반자협정(EPA)이란 일본에서 FTA 대신에 만들어 낸 용어로 FTA를 주축으로 하여 관세철폐 등 무역상의 장벽제거뿐만 아니라 체결국간 경제거래의 원활화, 경제제도의 완화, 서비스, 투자·전자상거래 등 여러 경제영역에서의 연대강화·협력촉진 등을 포함한 협정이다. 그런데 FTA는 특정국가와 지역 간에 관세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지만, EPA는 물류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동, 지적재산권의 보호,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2국간 협정 등을 포함하여 체결되는 포괄적이며 광범한 분야에서의 협정으로서 양국 또는 지역 간의 친밀한 관계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이다(財務省, 2015). 상품무역과 관련된 FTA에 대해서는 WTO의 GATT 제24조에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즉 구성국간의 실질상 모든 무역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내에 관세 등을 철폐할 것, 역외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 등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해 최혜국대우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WTO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오늘날 선진국이 체결하는 대부분의 FTA는 EPA와 마찬가지로 무역 이외의 경제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 EPA를 관습상 FTA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ウィキペディア, 2016).

한편 FTA·EPA·TPP와 WTO의 관계는 <표 1>과 같다. WTO는 2015년 11월 현재

162개국에 가입하고 있는 무역협정이며 중국과 인도도 가입하고 있다(WTO, 2016a). 현재 WTO·DDA 이래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과 개도국 등의 견해 차이로 인해 협상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대응책으로서 강구될 수 있는 방법이 다수국·2국간에 이루어지는 FTA이다.

<표 1> FTA·EPA·TPP와 WTO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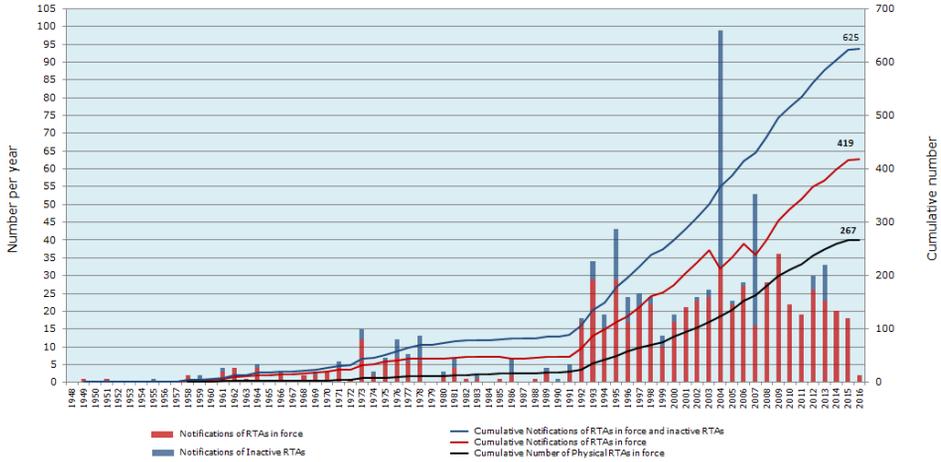
협정	범위	관계국	기관
FTA	물품의 자유화(90%)	2국간-복수국간	없음
EPA	물품의 자유화(90%) + 금융·서비스 등을 포함		
TPP	물품의 자유화(100%) + 기타 분야	12개국	
WTO	물품의 관세인하, 서비스 등 14개 분야	162개국	WTO

자료: 服部信司, 2011 ; WTO, 2016a를 참조하여 저작 작성.

특히,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둘 이상 당사국간의 상호적 무역협정인 지역무역협정(RTA)은 크게 증가하여(WTO, 2015), <그림 1>과 같이 2016년 2월 1일 현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WTO에 통보된 숫자는 총 625개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발효 중인 숫자도 419개에 이를 정도로 RTA의 전 세계적인 확대 추세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WTO, 2016b). 전통적으로 RTA는 역내 당사국간 상품의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자간·다자간 무역협정을 의미하므로¹⁾, 모든 RTA는 관세감축, 비관세 무역장벽의 감축 등 상품의 무역자유화에 관한 규범을 주된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만, 최근 체결되고 있는 거의 모든 RTA는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보호 등 WTO에서 취급하고 있는 거의 전영역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요 국가 간에 체결되고 있는 RTA는 이에 추가하여 경쟁, 투자, 환경, 노동, 인권 등에까지 그 규율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더욱이 서비스,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지적재산권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Bartels, 2012).

1) RTA는 그 경제통합의 방향, 내용, 정도 등에 따라 특혜무역지대(preferential trading areas),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s),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s),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s),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등 여러 형태로 나누어진다(Balassa, 1961 ; Bartels, 2012).

〈그림 1〉 세계 RTA의 현황



자료: WTO, 2016c.

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한국은 2003년 2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FTA를 추진한 결과 2016년 2월 현재 16차례(14건 발효, 2건 타결)에 걸쳐 전 세계 54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협상진행 중인 국가·지역도 4건이 되고 있다(〈표 2〉 참조).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세계 주요 거대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체결하게 되어 이와 같은 규모의 FTA 체결은 세계의 유일한 국가가 되고 있다.

〈표 2〉 한국의 FTA 추진현황(2016년 2월 현재)

구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의의	
발효(14건)	칠레	발효(2004년 4월)	최초의 FTA, 중남미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발효(2006년 3월)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4개국)	발효(2006년 9월)	유럽시장 교두보	
	ASEAN(10개국)	발효(2007년 6월)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2013년 기준)	
	인도	발효(2010년 1월)	BRICS국가, 거대시장	
	EU(28개국)	발효(2011년 7월)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페루	발효(2011년 8월)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발효(2012년 3월)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기본협정·상품 무역협정)	발효(2013년 5월)	유럽·중양아 진출 교두보	

FTA 확대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호주	발효(2014년 12월)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캐나다	발효(2015년 1월)	북미 선진시장
	중국	발효(2015년 12월)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2015년 기준)
	뉴질랜드	발효(2015년 12월)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발효(2015년 12월)	우리의 제3위 투자대상국(2015년 9월 기준)
타결(2건)	콜롬비아	정식서명(2013년 2월)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터키(서비스, 투자)	정식서명(2015년 2월)	유럽·중양아 진출 교두보
협상진행 (4건)	한·중·일(3국)	총 8차례 협상 개최(최초 2013년 3월, 최종 2015년 7월), 총 4차례 수석대표협상 개최(최초 2015년 1월, 최종 2016년 1월)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15개국)	총 11차례 협상 개최(최초 2013년 5월, 최종 2016년 2월)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중미(6개국)	2010년 10월 동연구개시 후 총 3차례 협상 개최(최초 2015년 9월, 최종 2016년 2월)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SECA)	2012년 4월 통상교섭본부장과 에콰도르 통상차관 면담 계기, 그 후 총 1차례 협상 개최(2016년 1월)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6를 참조하여 저자작성.

또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전체의 2%에 불과하지만, FTA 체결 국가의 GDP 총액은 세계전체 GDP의 73.5%에 이르게 되어 이는 한국 경제영토가 대폭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한국은 칠레(78%)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된다.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전체 GDP의 61%이었던 한국의 경제영토가 한·중 FTA 발효에 따라 급격하게 확대되게 된다(진홍구, 2015).

한편 2015년 11월 30일 국회는 한·중 FTA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지속적 보완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방안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정부에 대해 성실한 후속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한·중 FTA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안을 발굴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는 중국 정부와 성의 있는 협의를 통해 이를 실현시킬 것과 정부가 신속하게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개시하여 중국 시장의 추가개방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한·중 FTA 이행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다각적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불법 조업문제, 환경문제, 식품안전문제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협정발효 후 2년내 개최될

서비스무역·투자 등에 대한 후속협상 시 관련개선방안을 중국 측과 성의 있게 협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정민정, 최정인, 2016).

2. GVC의 선행연구

GVC 관련의 일반적인 선행연구로서, de Backer and Yamano(2012/3)는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GVC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몇 가지의 주요한 결점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Input-Output 데이터는 국제생산네트워크의 증대하는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지만, 무역데이터에 기초한 실증증거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Koopman, Wang and Wei(2013)은 미국통상대표부에서의 국제산업연관표의 개발과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부가가치의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추계하고 있다. Strugeon and Linden(2011)은 GVC에 대한 개도국의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선도기업이 아니라 공급업체의 경영전략이 GVC 형성에 담당하는 역할이 크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William and Winkler(2010)은 미국발 금융위기 후 세계경제의 GVC 변화로서 소비재에서는 생산집중도가 상승하고 중간재에서는 저하했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木村達也(2003)는 가공조립형 제조업의 제품에 대한 부품·소재로부터 서비스까지 독립된 산업을 단계별로 파악하여 이를 가치사슬로 보고 이익률을 지표로 스마일커브를 검증하고 있다. Gereffi and Sturgeon(2013)는 이제는 과거의 수출지향산업화(EOI) 또는 수입대체산업화(ISI) 정책의 추진은 그다지 의미가 없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에서의 국내 기업은 더 이상 독자적으로는 기업 유지를 할 수 없게 되어 글로벌한 경쟁을 통해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Park, Nayyar and Low(2013)는 GVC와 40-50년 전의 전통적인 국제무역과 투자연계 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국가간의 경제, 정치와 사회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용구조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김계환(2014)은 GVC 상의 소득과 고용은 제조업 최종재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기존 경쟁력 지표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석근영(2015)은 1990년대 이후 생산 및 거래활동의 국제적 분업이 심화되면서 GVC 내의 기업, 산업, 경제 간 상호연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MNC)을 중심으로 기업단위의 가치사슬 변화가 개별국가의 산업 및 고용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거버넌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Ivarsson and Alvstam(2010)는 가구소매업체인 IKEA사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그 분석의 목적은, 첫째, IKEA사의 중국·동남아시아 공급업자와의 GVC 상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 둘째, 저비용 국가의 공급업자에 대한 지

원이 발전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 Nakatomi(2014)는 메가 FTA 시대에 GVC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일본과 EU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 : GSC)과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Baldwin(2013)는 GSC의 계층적인 분석을 통해 GSC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Kraemer, Dedrick and Linden(2011)은 Apple사의 iPad와 iPhone의 GSC 혁신을 통한 가치분배를 분석하고 있다. 三菱総合研究所(2012)는 일본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 실태파악, 데이터분석을 한 후 연구회의 개최와 그 의견을 수렴하여 GSC의 구조와 실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지역·분야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이준구(2013)는 지리적 집중화와 저가시장(low end market)의 부상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휴대폰 GVC의 주요 동향과 그것이 경제적·사회적 고도화와 관련하여 갖는 시사점을 분석하고 있다. 藤田哲雄(2015)는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추월에 따라 일본 제조업이 어떻게 차별화를 도모해야 할지, 이를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Ali-Yrkkö, Rouvinen, Seppälä and Ylä-Anttila(2011)은 Nokia사의 스마트폰의 GVC를 부가가치기준에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조립가공은 개도국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부가가치는 선진국에서 배분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Christian and Gereffi(2010)는 미국 패스트푸드업계의 GVC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미국계 대형체인점의 GVC 형성이 소비자의 기호, 개도국기업의 모방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RTA·FTA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Elms(2014)는 최근 글로벌화의 가속화와 관련하여 아시아 PTA의 현재 성과를 분석한 후 GVC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shige(2013)는 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GSC와 FTA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Lim, Elms and Low(2011)는 TPP는 제품의 GVC를 제고하며 또한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Miroudot(2013)는 FTA의 유용한 활용에 대한 세 가지의 접근법, 즉, FTA에 의해 창출되는 비용 절감, FTA를 통한 효용의 극대화, 무역정책과 국제정치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동아시아에서의 GVC와 RTA 네트워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Ⅲ. GVC의 구조와 확대배경

1. GVC의 개념

가치(value)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노동시간의 양,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는데서 비롯된 고객의 효용, 경제적 부가가치 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또한 사슬(chain)이란 경제적으로는 투입요소를 변환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일련의 기술적인 단계이며, 협력관계 구축의 고리로 볼 수 있다. 한편 가치사슬(value chain)은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개발하고 가치를 창출하는데 따른 일련의 활동을 포함하는 사업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Porter, 1985). 일반적으로 가치사슬은 기업의 활동을 본원적 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구분하여 본원적 활동은 물류투입, 운영생산, 물류산출, 서비스의 단계를 거쳐 제품 및 서비스의 물리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직접 전달되는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원활동은 기업인프라, 인적자원관리, 기술개발, 구매 조달 등으로 구성되며, 본원적 활동에 필요한 관련 투입물과 인프라를 제공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치사슬은 공급사슬(supply chain)과 분배사슬(distribution chain)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급사슬은 하청 및 공급업자 등을 포함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 관련된 전네트워크를 의미하고, 한편 분배사슬은 생산시점의 하류부문(downstream)²⁾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과정을 의미한다. 가치사슬모델은 기업의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비용우위 및 차별화와 같은 기업의 경쟁전략 구축을 위한 분석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이준호, 김종일, 2007). 즉, 가치사슬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비스를 구상하고 이를 연구개발을 통해 구현한 후 생산, 판매, 이후 사용과 폐기에 이르는 전 범위의 활동을 말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타기업과의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가치사슬을 구축하는데, 이런 경우 가치사슬 대신 가치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Kaplinsky and Morris, 2000).

한편 글로벌이란 기업간의 관계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인 관계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들은 규격화·현지화로 물류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de Voorde and Lam, 2011). 여기서 GVC란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생산, 판매에 이르는 기업가치사슬의 전 과정이 글로벌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윤창

2) 가치사슬에서 하류부문인 판매 및 고객서비스는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반면에 상류부문(upstream)은 제품에 대한 설계·기획, 연구개발과 관련된 활동이다(김종기, 서동혁, 주대영, 최동원, 김재덕, 2014).

인, 2006). GVC는 MNC가 핵심역량을 제외한 가치사슬상의 다양한 활동을 글로벌 소싱과 계약 등으로 대체함에 따라, 과거 수출기업들이 디자인, 생산, 판매 등의 모든 활동을 자사의 가치사슬 내에서 수행하던 방식과는 달리 GVC를 형성하게 된다(APEC중소기업혁신센터, 2014 ; Gereffi and Memedovic, 2003).

GVC의 상품사슬은 가치사슬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생산자주도형 상품사슬과 구매자주도형 상품사슬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Gereffi and Sturgeon, 2013). 생산자주도형 상품사슬은 MNC 혹은 생산자가 생산네트워크의 핵심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형태이다. 이 형태의 사슬은 제조단계의 부분공정을 공간적으로 재배치하여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하며, 현지기업에게 기술이전을 한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구매자주도형 상품사슬은 대형소매업자 혹은 구매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제3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수출업자들의 생산네트워크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양자의 차이는 가치사슬을 조직하는 기업과 생산되는 재화의 종류보다는 가치사슬의 지배구조와 그것이 현지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해 구분된다. 구매자주도형 상품사슬의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설계, 사양 및 브랜드에 부합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전과 훈련을 통해 생산위탁기업의 능력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Porter, 1985).

2. GVC의 형성요인과 구조변화

1) GVC의 형성요인

GVC가 형성되는 요인으로는 기업간 경쟁의 증가, 운송수단 및 ICT 등의 발달, 신흥개도국의 저렴한 공급업체의 등장, 무역자유화로 인한 기업전략의 변화 등이 있다. 기업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자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부가가치 핵심역량 및 활동에 집중하고, 비핵심활동은 아웃소싱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GVC 내에서 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설계, 브랜드, 마케팅과 같은 제조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됨에 따라 제조부문의 대부분을 아웃소싱하고 있다(OECD, 2007a).

각국의 수입관세가 인하되고 운송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해외생산비용이 절감되고, 제품이 표준화되어 외주생산의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된다. OECD 제조업자들의 경우 중국과 인도와 같은 비 OECD 국가들을 포함한 다른 국가로부터 생산한 원·부자재도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인하와 제품표준화도 또한 외주를 촉진하는 요인으로서 세계 각국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GVC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CT의 발전과 서비스부문의 무역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정보기술(IT)과 관련된 산출물의 이동 및 전송이 용이해져 지식집약적인 서비스에 대한 외주가 가능하다(이준호, 김종일, 2007).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업서비스 부문을 아웃소싱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사업 서비스부문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1990년대 후반 ICT 및 관련 기술부족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업서비스 부문의 해외 외주를 실시하고 있다(OECD, 2007a ; 이준호, 김종일,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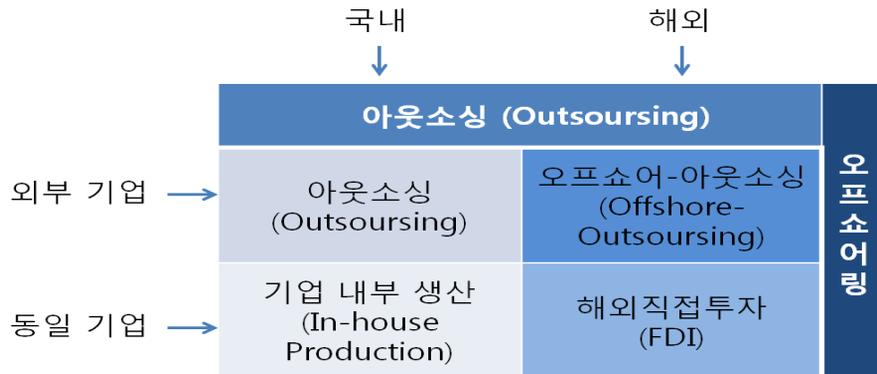
한편 GVC의 유형은 시장적 관계와 비시장적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시장적 관계는 생산자가 최종시장의 중개자인 전문 수입업자를 통해 연계되는 경우로 현지 중소기업으로서 기업가치사슬상의 판매부분에 해당한다(Humphrey and Schmitz, 2000). 이러한 사슬에서는 주로 최종소매업자, 최종소비국의 전문 수입업자 혹은 생산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으로 상품을 제공받는 MNC, 현지소비자와 수출대행업자, 현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원자재를 조달받는 대형생산회사 등이 GVC를 지배하고 있다(이준호, 김종일, 2007). 그런데 비시장적 관계에서는 상호보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자본에 의한 결합관계는 미약하지만 주통솔자가 지배하는 준계층 관계, 해외직접투자(FDI) 등으로 연계된 계층관계로 구분된다(Humphrey and Schmitz, 2000). 네트워크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기술을 가지고 서로가 대등한 영향력을 가진 생산업자들 간에 발생하는 관계로, 개별중소기업들이 클러스터 등을 형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Baldwin, 2013). 준계층관계는 구매자와 생산자간의 관계가 소유권을 통해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형태를 의미하며, 기업가치사슬의 생산부분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지배하는 선도기업의 영향력이 크다.

2) GVC 구조의 변화와 요인

GVC 구조란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FDI, 아웃소싱 등을 통해 국가간 생산단계를 나누는 분업체제로, 기업들이 상품·서비스의 기획, 생산, 판매단계를 각각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입지시켜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더해가는 활동을 뜻한다. 기업 입장에서 GVC 구조를 활용하게 될 경우, ① 교역비용, 관세, 운송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② 현지 인프라, 물류서비스를 활용해 적기 납품 및 납품 신뢰성도 높일 수 있으며, ③ IT 기술 발전으로 생산활동의 지리적 제약도 줄어들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가치사슬에서 제품의 생산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업에 의한 조율이나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GVC를 지배하는 기업의 역할이 GVC의

특징과 범위, 현지 중소기업의 GVC에 대한 편입여부 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은 GVC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해외기업에 외주생산을 위탁하는 오프쇼어아웃소싱(Offshore-Outsourcing)과 해외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FDI 형식이 이용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GVC 구조 관련 기업생산 방식



자료:이재우, 김영석, 오경일, 이윤관, 김중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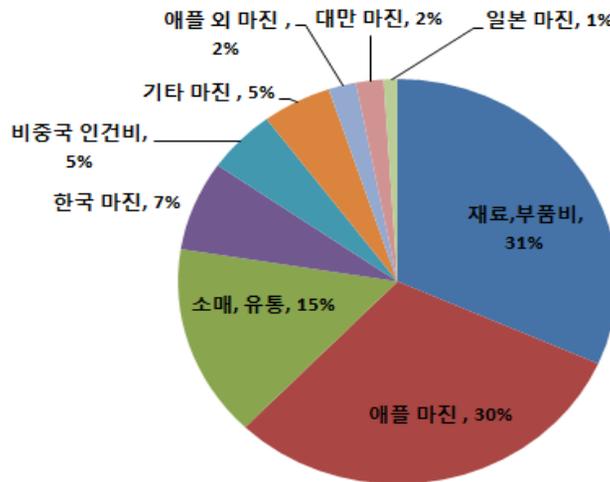
1990년대 이후 GVC 구조에 의한 국가간 분업체계가 정착·확산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최종재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해당 재화 및 최종재에 투입되는 중간재 및 1차 상품의 교역확대를 동시에 유발시켜 세계교역량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교역의 소득 탄력성(GDP 대비 교역량 비율)은 2000년대 이후 주요 교역국들이 자국내 고용개선,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제조업 성장과 유치 전략을 취하면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국내화 추진으로 GVC의 구조변화, 중간재 수입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WTO, 2016d). 2000년대 들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국내화 추진으로 FDI 증가율도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어 GDP 1% 증가시 세계 교역량 증가율도 1.3%로 하락하고 있다(이재우 외, 2015).

특히, 중국의 경우 GVC 구조에서 중간재 수입·소비재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함에 따라 기술발달에 의한 고부가가치화 및 외국기업의 중국내 현지화로 중간재 수입 대체가 늘어나게 되어 중간재·자본재 수출 증가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기업들의 자체 기술발달에 의한 수입대체화도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이다(WTO, 2014). 중국 등 주요 생산국들의 고성장으로 인건비 및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개도국 해외생산의 장점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배경이다(안병익, 2014).

GVC 구조가 정착됨에 따라 국제산업에서 한 국가의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각각

의 단계에서 부가되는 부가가치 기여도를 파악하는 부가가치 무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중간재 투입 비율이 높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은 완제품 국가의 수출로 파악되지만 사실상 많은 국가들의 기업이 참여하는 다국적 제품이므로 참여 기업들의 기여도를 파악해야 정확한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GVC 구조에 의해 분업 생산되는 iPad의 경우 기획·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Apple사의 부가가치가 전체 부가가치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참여분야에 따라 수익배분의 비율에 매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참조).

〈그림 3〉 GVC 구조에 의한 iPad의 수익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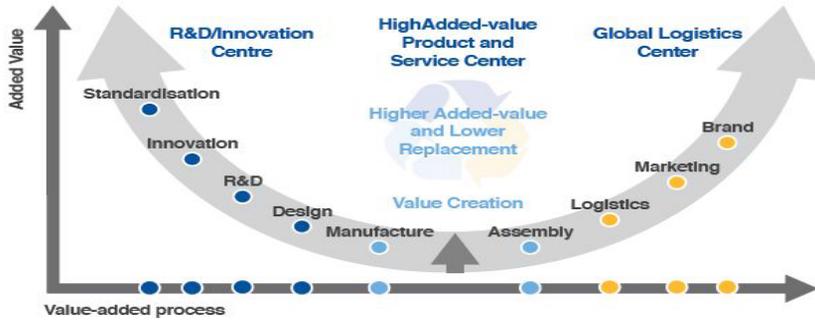


자료: Kraemer and Linden, 2011.

3) GVC와 스마일 커브의 구조관계

스마일 커브(smile curve)는 수익성이라는 부가가치와 가치사슬의 좌표가 만들어 낸 곡선이 웃는 입 꼬리 모양과 유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며, 그 외에 ‘웰 커브(well curve)’ 혹은 ‘모나리자 커브’라고도 부른다(〈그림 4〉 참조). 보통 컴퓨터 산업 등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포함하여 지식경제 산업에 주로 적용되는 개념이며, 대만 컴퓨터 회사인 ACER 컴퓨터 창업자인 Stan Shin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림 4〉 GVC 구조 상 부가가치 스마일 커브



자료: Chaitravi's Blog, 2010 ; WTO, 2013.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TV, 휴대폰 등 첨단제품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완제품 경쟁력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핵심소재와 첨단부품의 상당 부분을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대일 무역역조 현상은 지난 20-30년간 해소하지 못해온 숙제이다. 한국의 하드웨어(H/W)중심 제조업의 역량은 세계 최고임에 비해, 기술적 요소의 양 축에 해당하는 원천소재와 소프트웨어(S/W) 분야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재·부품·조립·가공·마케팅·서비스로 이어지는 가치사슬로 되어 흔히 크라이닝 커브(crying curve)라 묘사되어 왔다. 최근 부품과 소재산업의 성장세가 뚜렷하여 한국의 수출산업의 가치사슬도 스마일 커브로 개선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스마트폰, 태블릿 PC, SNS 그리고 본격화되기 시작한 스마트TV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어지는 IT 산업의 혁명적인 발전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경제가 본격화되었다. IT 기술이 가미된 인터넷, 통신,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가치사슬에 있는 개발,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의 융복합화 추세가 글로벌로 진행되어 화난 모양에서 웃는 입 꼬리 모양으로 부가가치의 발생 단계를 U자 형태로 바꾸어 놓았다.

스마일 커브를 전략에 반영한 Apple사는 적정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산 공장을 경제적으로 유리한 중국에 두고, 한편 개발, 디자인, 토탈 솔루션 제공을 하는 기능은 미국 본사에 두었다. 제조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스마일 커브의 양 끝단으로 이동하면서 21세기형 기업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런 추세는 스마트폰 혁명으로 인해 H/W와 S/W,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의 만남으로 본격화된 융복합 트렌드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ICT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도 융복합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며 융합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스마일 커브의 모양에서 살펴보면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IT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

의성으로 곡선의 양 끝단에서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전략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안병역, 2014).

그런데 R&D, 디자인 등 상품 개발 단계 및 마케팅, 유통, 사후 서비스 등 제조 사후 단계의 부가가치는 더 높아지는 반면, 조립·생산을 담당하는 제조 단계의 부가가치는 더 떨어져 가치사슬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부가가치 차이가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GVC 구조가 성숙단계로 접어들어 교역 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부가가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마일 커브 상 고부가가치분야인 R&D, 디자인 및 마케팅, 유통, 사후 서비스 등 제조 단계 전·후방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금동화, 2014).

3. GVC의 확대배경

1) FDI의 지속적인 확대와 RTA의 가속화

세계 해외직접투자(Inward FDI 기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경제의 침체에 따른 영향에도 불구하고³⁾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신흥개도국에 대한 유입액은 2000년대 초반 이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09년까지 선진국에 대한 FDI가 신흥개도국에 대한 수준을 상회한 후에는 신흥개도국에 대한 투자액이 선진국을 상회하고 있다(최정은, 2014). 신흥개도국의 경우 중국, ASEAN 등 아시아 신흥개도국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에 대한 투자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GDP 대비 FDI 비중(잔액 기준)은 1990년 10% 내외 수준에서 최근에는 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UNCTAD, 2015a ; UNCTAD, 2015b). 그 형태별로 보면, 2000년대 들어 Greenfield형 투자(신설투자)비중이 M&A형 투자비중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신흥개도국의 경우 신설투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M&A형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UNCTAD, 2015b).

한편 FDI 확대와 함께 원자재 생산에서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재화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무역자유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국가간·지역간 협정도 진전되고 있다(WTO, 2016a). 협정의 포괄범위를 보면, 상품, 서비

3) 세계 FDI 유입액은 2001-2003년중 IT 버블 붕괴에 따른 선진국들의 경기부진 및 9·11테러로, 2008-2009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각각 감소한 바 있다. 그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위기 이전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최정은, 2014).

스 및 자본의 이동자유화를 추구하는 FTA가 주종을 이루고는 있지만, 경제통합협정(EIA)⁴⁾이 증가하면서 개별국가의 금융·재정정책 등으로 협정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표 3〉참조). 또한 각국은 WTO 체제 하에서 서비스(GATS) 및 지적재산권(TRIPS)관련 무역자유화 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은행, 2014). 한편 GVC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간 생산의 연계성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주요국을 대상으로 산업생산 증감률의 상관계수분포⁵⁾를 구해 보면, 선진국과 선진국간, 선진국과 신흥개도국간 및 신흥개도국과 신흥개도국간의 상관정도가 과거와 비교하여 상승하고 있다(최정은, 2014).

〈표 3〉 RTA의 발효 현황

(건)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계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3	4	6	15(2)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3	45	164	218(7)
관세동맹(Customs Union)	3	8	11	25(3)
경제통합협정(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1	6	110	18(1)

주: 1) PTA, FTA, CU, EIA 순으로 경제통합의 수준이 상승

2) ()안은 1979년 이전의 체결건수 누계

자료: WTO, 2009.

한편 2014년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주도로 총 6개국이 참여하여, 주요 산업별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전략과 정책방안, GVC 참여를 위한 촉진사업⁶⁾을 제시하였다. 2014년 APEC에서 GVC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있어 각 단계별로 비용경쟁력이 있는 국가들로 생산을 분산하여, 역내 중간재 교역을 늘리고 부가가치를 공유하자는 구상으로 한국이 주도해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이다(이광석, 2015).

이 밖에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연구사업을 제안해 GVC에 더 많은 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제안한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연구사업'은 5개 산업(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농업, 보건산업)별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GVC 참여 사례연구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하는 것이

4) 노동 등 생산요소, 금융·재정정책 등으로 협정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관세에서 비관세, 서비스, 자본 등에 이르기까지 공통의 무역장벽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EU,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협정(TPSEP) 등을 들 수 있다.

5) 선진국 21개국, 신흥국 14개국 등 주요 41개국의 산업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의 상관계수 분포를 상관계수 구간별로 해당 국가수로 표시하되, 1996-1999년, 2000-2007년, 2010-2013년으로 구분하여 분포를 작성하고 있다(다만,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이 컸던 2008-2009년은 제외)(최정은, 2014).

6) APEC 중소기업의 GVC 참여 촉진사업은 IT/전기전자(한국), 자동차(필리핀, 말레이), 섬유(베트남), 헬스케어(미국), 농식품(태국) 등이다.

다. 한국이 회원국간 FTA 협상 역량 격차 완화와 중소기업의 GVC 참여지원을 위해 2단계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 및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연구사업을 제안한 것은 APEC내 선·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태균, 2015).

또한 G20 통상장관들이 2015년 10월 5-6일 터키 이스탄불에 모여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세계무역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무역성장세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조속한 비준·이행과 보호무역조치의 동결 및 철폐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각료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이로비 각료회의 성과 도출을 위해 개발이슈 등을 포함하는 소규모 패키지를 구성하는 방안,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에 WTO에서 논의될 의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의 뉴 노멀(New Normal)시대⁷⁾를 맞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진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제사회 선도국들이 국내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경우에 세계 및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5).

한국은 총수출 중 부품·소재 수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아 한국기업이 무역 및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과 GVC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APEC에서 '중소기업 지원' 의제의 주도국으로서 2015-2016년간 이 분야 논의를 주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GVC 참여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5). 또한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협정 수락서 기탁 등 발리패키지 이행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나이로비 패키지 구성, 포스트 나이로비 WTO 의제 설정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티뉴스와이어, 2015).

한국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와 전통적 제조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GVC상 고부가가치사슬에 편입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 산업전략을 GVC상 부가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산업별 GVC 지도를 작성하고 해당 GVC 상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가진 지역중소기업들을 위해 가상 중소기업 GVC 클러스터(Virtual SME GVC Cluster)를 조성하고, 특정 GVC에 특화된 중소기업들이 소규모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GVC 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이준호, 2013).

7) 뉴 노멀이라는 단어는 2003년 미국의 벤처투자자인 로저 맥나미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형성된 미국의 버블 경제 이후 새로운 기준이 일상화된 미래를 일컫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 뉴 노멀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적인 표준을 뜻하는 말이다(뉴스퀘어, 2015).

2) 교역 제품의 동질성 증대

특정 국가의 수출품 구성과 무역 상대국의 수입품 구성간의 동질성을 포착하는 무역 보완도지수⁸⁾가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신흥개도국 수출제품의 무역보완도가 신흥개도국시장은 물론 선진국시장에서도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선진국 수출제품의 무역보완도는 선진국시장에서 대체로 하락하고 있지만 신흥개도국시장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소 높아지고 있다(UNCTAD, 2015b).

주요 권역별로는 NAFTA 및 EU 등의 수출은 일본, 중국 등에 비해 미국, 독일 등 인접 시장의 수입 패턴과 높은 동질성을 보이는 반면, ASEAN의 수출제품은 지역별로 고른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UNCTAD, 2015b). 이는 NAFTA 및 EU 회원국에는 다수의 선진국이 포함되어 있지만 ASEAN은 신흥국으로만 구성(싱가포르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최정은, 2014).

GSC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신흥개도국이 주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세계교역에서 신흥개도국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신흥개도국의 수출 증가세가 상품 및 서비스에서 선진국을 상회함에 따라 신흥개도국 비중(상품+서비스 기준)이 1990년 31.0%에서 2013년 46.59%에 달하는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UNCTAD, 2015b).

특히, 생산기지 이전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중국 등 아시아지역의 중요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중국 및 ASEAN의 수출 비중이 EU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낮은 임금 및 일정 수준의 기술, 사회기반 및 금융 인프라 등의 조건을 갖춘 국가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UNCTAD, 2015b). 지역별로 보면 역내 수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역의 블록화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아시아지역에서는 선진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신흥개도국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최정은, 2014).

8) 한 나라의 수출품 구성이 수입국의 수입품 구성과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일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IV. 중소기업의 GVC 활성화 방안

1. GVC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방안

GVC 확대는 중소기업에게 기회임과 동시에 위협 요소이다. ICT 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활용과 운송시설의 발달로 중소기업이 GVC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며, GVC에 하청공급업자로 참여할 경우 개별 중소기업이 생산할 때보다 낮은 비용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글로벌 기업과의 접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기술 및 경영방식의 혁신 학습은 참여한 중소기업의 업그레이딩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준호, 2013).

한편, GVC를 지배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은 해당 가치사슬에 편입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지배기업들은 지역 중소기업들을 교육, 육성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기술 개발을 제어하기도 한다. 일부 대기업들은 신기술 등으로 무장한 중소기업이 시장에 출현함으로써 자사가 관장하고 있는 GVC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을 가진 중소기업을 의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슬에 편입되지 못한다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은 해당 가치사슬 내에서 생존하기 위한 게임의 법칙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GVC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입할 수 있다(〈표 4〉 참조). MNC 혹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 내의 중소기업들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가운데 지역 내 중소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국제시장과의 연결고리가 형성되게 되며 선진기술에 대한 학습효과도 습득할 수 있다. 국내외 대형 매수인들과 연결됨으로써 글로벌 시장으로의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며, 라이선싱이나 하청을 통해서도 지역 내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한편 비공식적인 수단들이란 대체로 기술의 복제 혹은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을 통한 제품의 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선진기술을 보유한 회사나 세계적인 기술을 유도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근무했던 기술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 등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ADB, 2003). 이 경우 OEM, ODM⁹⁾이나 전략적 기술 제휴, 해외지분의 인수 등이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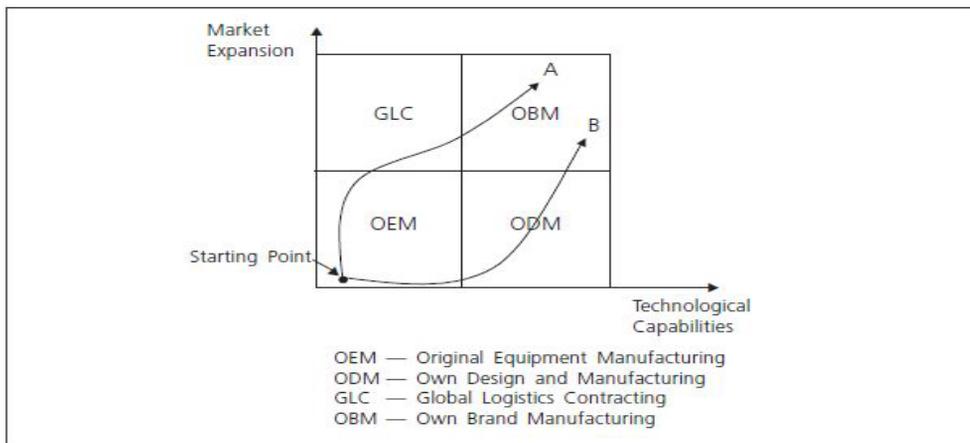
9) 제조자설계생산·제조자개발생산(ODM)은 주문자의 생산위탁을 받아 그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을 의미하지만, 한편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자(OEM)와의 차이는, OEM이 주문업체의 설계도에 따라 단순 하청 생산을 하는 업체임에 비해 ODM은 생산자가 설계부터 제작 및 생산까지를 모두 주도하여 완성하는 업체를 뜻한다.

〈표 4〉 중소기업의 GVC 참여 유형

유형	내용
외국인직접투자	- 일부 해외기업들은 현지 하청업체들을 훈련시킴으로써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현지 기업을 직접 지원함 - 대부분의 MNC는 현지 자회사내 기술자 및 관리자를 훈련시켜 노동력의 경험과 역량을 제고시킴
Joint Venture	- 해외 기계, 부품, 원자재 및 외국인 관리기술 등을 합작사로부터 획득하고, 대규모 생산, 저비용, 표준화된 상품생산을 위한 역량을 단계적으로 향상
외국 및 현지 매수인	- 외국인 및 현지 구매자들은 신흥공업국 기업들이 GVC의 진입점이며 마케팅 및 기술 지식의 필수적인 원천임 - 매수인들은 현지기업들을 다양한 형태의 기술과 상품 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 회계 절차에 대한 질과 비용에 대한 조연을 실시
라이선싱	- 라이선싱계약은 현지기업이 현지시장을 위한 제조품에 대한 권리를 위해 비용을 지급하고, MNC는 그에 대한 기술을 제공함
하청	- MNC는 장기하청계약관계 하에 현지기업을 훈련시킴 - 후발자는 훈련 및 기술지원을 받고 구매자에 의한 최종재에 대해 협력해야 함 - 하청은 일반적으로 저부가가치 제품 및 시스템에서 발생함
비공식적 수단	- 단기계약하에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 상품을 복제하는 것을 포함
OEM	- MNC와 현지공급업자 간의 합작협력이 발전된 하청의 형태로서, 생산과 관에 대한 조건뿐만 아니라 관리자 및 기술자의 훈련, 자본재의 선택에 있어 외국인 파트너가 관여하는 형태임
ODM	- 198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었는데, OEM으로 구입하는 전자제품을 디자인하고 특화하는 것으로 자사의 개별브랜드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고, 보다 나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선택함
전략적 기술제휴	- GVC 내에서 영향력이 큰 후발기업은 자신의 입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기업과 공동으로 선진화된 신상품 및 공정을 개발함
해외지분인수	- 국제단계에 있어 리더가 그들 자신의 GVC를 초기화하는 단계에 있어, 유통, 기술, 제품설비를 획득하기 위해 산업국가 내 첨단기술 기업을 매입 하는 형태

자료: ADB, 2003.

〈그림 5〉 OEM에서 ODM으로의 경로



자료: Mathews and Cho, 2000.

GVC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을 GVC내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성하는 다양한 사슬로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의 직접수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의 GVC에 편입시키기 위한 전략이 보다 보편적인 글로벌화 지원정책이 될 수 있다(이준호, 2013).

2. ICT 산업의 GVC 활성화 방안

세계경제가 통합되고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ICT 산업의 GVC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IT 기술의 발전,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부상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전자 강국 일본의 부진, 생산 및 수요시장으로서 신흥개도국의 부상 등 세계 ICT 시장의 경쟁 구조가 달라지면서 ICT 산업의 GVC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즉, GVC가 확산되면서 IT 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 무역이 증가하고, IT 제품을 조립·생산하는 기업보다는 기획·연구개발 또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TV,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ICT 강국이라 불리는 이유이다. 그러나 한국은 고부가가치 창출과 GVC 주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품 기획·연구개발, 그리고 S/W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세계 ICT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일찍부터 글로벌 무역에 적극 참여하고 활발한 해외투자를 통해 ICT 산업의 GVC 참여도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 ICT 산업은 수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미국, EU, 일본 및 중국 등과 비교해 낮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비중도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ICT 산업의 GVC 구조는 상품설계, 연구개발, 서비스 등 무형 GVC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 ICT 산업에서의 비교우위는 어느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느냐보다는 어느 기업이 GVC를 주도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ICT 산업의 GVC는 더욱 분절화 및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GVC에 참여가 미진하거나 편입되지 못할 경우 세계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내 ICT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참여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김종기 외, 2014). GVC 확대를 기업들은 경영효율 및 수익(부가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에 더욱더 집중하고, 여타 부문들은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무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생산과 해외조달을 두 축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소싱, 중간재 교역, FDI 및 부가서비스 무역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특

히, ICT 산업에서 이러한 GVC 단계별 분업화와 무역 형태가 잘 나타나고 있다(고일훈, 박상준, 유현주, 2014).

한편 사물인터넷(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999년 Kevin Ashton이 Protector & Gamble사에서 RFID(전자 태그 ; IC 태그)를 활용한 SCM 업무 담당 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한 가전제품의 등장으로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IoT이다(Maney, 2015). 또한 복합 센서를 통한 차별화된 기능 및 서비스의 구현이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센서 제조사, 디바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은 GVC 상에서 각자의 핵심 경쟁력을 기반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경쟁하며 협력하고 있다. 특히, 디바이스 제조업자들은 지문 인식 센서, 환경 센서 등을 빠르게 적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H/W Form-factor를 통해 센서를 활용한 기기의 차별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업들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최적의 상태로 제공하기 위해 특화 센서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센서가 탑재된 디바이스를 직접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정현태, 전현철, 송민정, 전수진, 류기훈, 광기호, 김철희, 2015).

현재 세계 ICT 시장에서는 핵심 기술과 표준을 누가 선점하고 주도하느냐 여부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되고 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업체가 시장지배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면서, 미국, 서유럽 등 선진국들이 생산 단계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업자보다는 제품을 새롭게 기획·개발하고 특허나 플랫폼 등과 같은 핵심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해당 GVC와 시장을 주도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ICT 산업에서의 비교우위는 어느 기업(또는 국가)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느냐보다는 어느 기업이 GVC를 주도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김중기 외, 2014).

예를 들면 한국타이어와 삼성전자는 FTA를 해외생산의 GVC 효율화에 활용한 경우로 헝가리 생산 공장의 부품 조달선을 한국으로 전환하여 한·EU FTA 역내 원산지 비율을 충족하여 EU 역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기존 중국산 부품을 한·EU FTA 관세 인하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산으로 전환하여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제고하고 있다. 한국산 부품조달에 따른 관세절감분은 현지 생산능력 향상에 재투자하여 역내 생산 확대로 이어져 헝가리 정부로부터 보조금 수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일훈 외, 2014). 또한 일본과 유럽·미국기업들이 글로벌 생산체제 효율화의 전략을 추진한 결과 기업의 글로벌 생산지 결정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중 FTA 활용은 배타적 특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기반과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개

선과 더불어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주는 배타적 이익은 기업들의 생산기지 결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 물류산업의 활성화 방안

FTA의 활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물류기업과 제조기업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물류기업 측면에서는 FTA 환경하에서의 글로벌 물류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한 특화된 신규서비스가 필요하며, 제조기업은 FTA로 인한 GVC 관리에서의 물류 효율화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편 GVC의 조달물류 단계를 활용하는 FTA 비즈니스 모델은 수입선 전환 및 다변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소싱 모델, 광산물 채굴이나 수산물의 채취 후 바로 국제운송하는 직접운송 모델, 중간재 조달 모델 등이 있다. GVC의 생산물류 단계를 활용하는 FTA 비즈니스 모델은 역외가공 모델, 각종 수입시점과 수출시점의 FTA 특혜를 활용하기 위해 국내를 활용하는 FTA HUB 모델¹⁰⁾, 국내에 생산시설을 두는 생산거점 모형, 외국에 생산거점으로 두는 수출거점 모델, 하나의 협정국내에서 중간재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누적생산 모델, 역외국가 물품과 역내국가 물품으로 세트 구성을 허용한 경우에 세트구성 모델,¹¹⁾ 역외국가에서 가공한 부가가치가 10% 미만을 허용한 경우에 미소가공 모델¹²⁾ 등이 있다. GVC의 보관물류 단계를 활용하는 FTA 비즈니스 모델은 역내 국가의 물류창고의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의 해외 물류거점 모델 등이 있다. GVC의 유통물류단계를 활용하는 FTA 비즈니스모델은 FTA 협정국가와 역외국가의 시장점유를 고려하여 기업이윤을 최대로 하는 시장확장 모델 등이 있다(송병준, 2014). FTA는 경제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며,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활동 영역이 넓어질수록 물류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KOTRA는 한·미 FTA 발효에 맞춰 우리 수출업체들이 꼭 유념해야 하는 ‘한·미 FTA 활용수칙 5계명’을 제시하였다(최종락, 2016). KOTRA는 미국 매수인과 업계 전문가 30명과 인터뷰한 결과와 한·미 FTA 관련 국내 수출업계 문의사항을 토대로 5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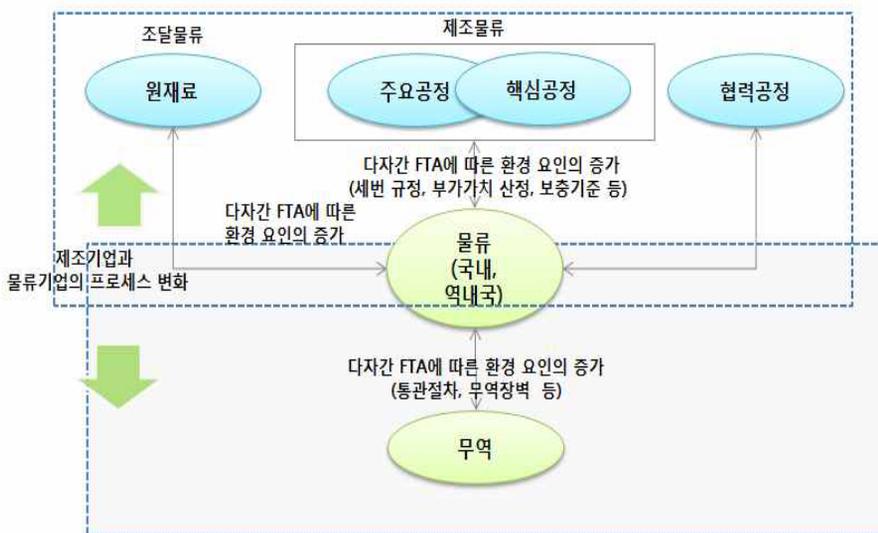
-
- 10) FTA HUB 모델은 한국이 체결한 FTA 체결국으로부터 값싼 원재료를 무관세로 수입하여 완제품을 가공한 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한국이 체결한 또 다른 FTA의 체결국으로 수출하도록 한국을 FTA를 활용한 HUB로 활용하는 모델을 말한다.
 - 11) 세트구성 모델은 소매용 세트상품의 구성요소 중에서 비원산지 물품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활용하는 모델을 말한다.
 - 12) 미소가공 모델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지만 비원산지재료의 비율이 미미한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원산지기준을 활용한 모델을 말한다.

수직을 정리했다. 즉, 그 활용수직 5계명은 매수인 홍보의 첫걸음, 원산지 검증, 홈페이지의 중요성, 관세인하, 사전에 최종판매가격의 점검과 소량주문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는 등이다.

위의 KOTRA의 발표에서도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다. 관세인하 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물류시스템, 사후관리(A/S), 인증 등의 비가격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물류기업들 중에는 FTA와 물류산업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곳도 있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물류기업들도 관세사를 영입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FTA로 인한 새로운 공급사슬의 변화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물류기업들에게는 기회이며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물류기업들 역시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됨으로써 글로벌 물류기업들과의 경쟁이 불가결한 상황인 만큼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대비해야하는 시점이다.

FTA의 가장 큰 효과는 관세특혜에 따른 수출입 경쟁력 강화이며, 산업구조가 대기업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어 해외 글로벌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바,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조속히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FTA 특화 글로벌 공급망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통하여, FTA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그림 6〉 참조).

〈그림 6〉 FTA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 프로세스의 변화



자료: 송병준, 2014.

4. 메가 FTA 확대에 따른 GVC의 활성화 방안

FTA 체결에 대한 선도국의 이점을 활용하여, TPP·RCEP·한중일 FTA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통상우위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TPP의 경우 그 비준동향, 국내 영향분석 결과, 12개 참여국과의 예비양자협의 경과 등을 토대로 'TPP 로드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2016년 내). 예를 들면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 추진계획, 예비·공식 양자협의 계획 등이 포함될 것이다(박정준, 2016). 또한 RCEP에 대해서도 한·중·일이 실질적 이익 균형을 달성하면서 정상 합의사항¹³⁾을 염두에 두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호혜적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WTO 복수국간 협상과 관련하여 정보기술·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무역자유화 협상을 관련 산업구조 혁신 및 규제·제도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기술 협정(ITA)의 확대협상 타결(2015년 12월)에 따라 양허표 수정, 국내 비준 등 이행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이르면 2016년 7월부터 매년 관세 균등 감축), 이 이외에도 복수국간 서비스협상(TISA),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2016년 타결목표)(관계부처합동, 2016).

다자협력기구인 APEC·OECD·G20 등 다자협력체의 경제통상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여 GVC·전자상거래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GVC 내 부가가치 제고와 관련하여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R&D 투자확대 등을 통해 GVC 내 고부가가치 단계의 선점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현재 기술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GVC에서 고부가가치 선점이 가능한 분야(모바일, 핀테크, 반도체 등)에 대해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기업의 아웃소싱 수요에 부응하는 '중소기업 GVC 매칭 정보제공 포털'을 구축·운영해야 할 것이다(중소기업진흥공단, 2012). 또한 해당국 소재 글로벌 기업 등에 대해 재외공관, 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 : BI)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배경화, 2014 ; 김정곤, 최보영, 이보람, 이민영, 2014). 대기업의 중소기업 GVC 진입 지원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단체와 글로벌 기업간 교류도 촉진해야 할 것이다.

APEC에서는 중소기업의 GVC 참여 촉진(2015-2016년) 및 전자상거래 촉진(2016-2017년) 사업을 추진 중이다. GVC에 대한 참여도(교역관계를 감안한 수출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다수 국가에서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 기업의 신흥개도국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기술 이전 및 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술·지식집약

13) RECP는 ASEAN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2015년 11월 22일) 정상간 2016년 타결 기대를 공유하고, 한·중·일 FTA는 한·일·중 정상회의(2015년 11월 1일)에서 협상 가속화 노력을 재확인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6).

적 제품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분산된 생산단계의 효율적 연계성이 중요해지면서 이에 수반된 서비스 교역이 상품 교역보다 더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 특정 국가의 수출품 구성과 교역 상대국의 수입품 구성간의 동질성이 신흥국 수출품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고, GVC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신흥개도국이 주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세계교역에서 신흥개도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최정은, 2014).

GVC 확대로 교역패턴이 변화하고 국가간 생산 및 교역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국가의 경우 GVC의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반 여건의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국가 등에서 발생한 충격이 이전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파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모니터링 및 리스크관리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V. 결론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국제분업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생산과정은 일련의 직무들로 분절되고 나뉜진 직무들이 서로 다른 국가·지역들에서 수행되고 있다. 중간재는 추가가공을 위해 여러 차례 국경을 넘어 이동하며, 각 단계에서 다양한 정도의 가치가 더해져 최종생산물이 된다. 생산과정의 분절화와 탈집중화, 그리고 이에 따른 순차적인 부가가치 활동은 지난 몇 십년간 제조업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GVC 접근법은 생산의 분절화와 탈집중화, 개도국으로의 최종시장의 중심 이동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분업이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의 생산 연결망 속에서 가치획득과 고도화의 결과는 상당부분 선도기업들의 유형과 그들의 거버넌스 전략에 의해 좌우된다.

GVC 확대가 국가산업 전략은 물론 교역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함을 요구하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GVC 확대는 기업경영 전략, 특히 글로벌화 전략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단순히 단계적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과거의 수출기업화 전략은 GVC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21세기 산업에서 개념적 한계를 노출한다. 따라서 GVC 확대는 단순한 생산 이전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기업의 원자재·부품공급, 제조, 운송, 판매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기적인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진출 국가 및 대상 국가에서 기업의 FDI 확대, 제품생산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교류 및 이전 확산,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당국은 수출 증대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경제의 질적 도

약이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생산 및 교역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TV,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가치사슬 경쟁력의 원천인 아이디어·지식·기술·마케팅 등 무형자산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우리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치사슬의 핵심인 R&D, 상품기획 디자인 첨단부품 생산 등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술, 지식, 인력 등 창조적인 생산요소가 부단히 축적되고 상호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GVC 확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수준 이외에도 생산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뒷받침할 수준의 정보통신·인적 인프라보유, 기업친화적인 제도 및 투자 환경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메가 FTA의 추진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간·지역간 무역협정도 단순한 관세철폐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인 GVC 확보를 위한 새로운 교역질서 형성 및 이에 따른 주도권 확보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양·다자간 FTA 체결과 같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GVC에 편입될 수 있는 다양한 국제화 행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국제화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국내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장기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계 MNC가 국내 중소기업과 연계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R&D 투자액기준을 완화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감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산업 클러스터내에 위치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에의 하청 등을 통해 기술이전과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감세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특히 기술이전효과가 큰 M&A 형 중소벤처기업으로 인센티브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지(2015),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15권 제 2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13.
- 고일훈·박상준·유현주(2014), “국내외 기업의 우리나라 FTA 활용전략,” 「Global Market Report 14-014」, KOTRA, pp.1-61.
- 관계부처합동(2016), “2016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pp.1-33.
- 김계환(2014), “글로벌가치사슬로 본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 「산업포커스」, KIET, pp.30-39.
- 김정근·최보영·이보람·이민영(2014),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14-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50-52.
- 김종기·서동혁·주대영·최동원·김재덕(2014),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변화와 발전과제,” 「연구보고서 2014-734」, 산업연구원, pp.1-267.
- 박정준(2016), “TPP 발효까지 앞으로 2년, 치밀한 전략 필요해,” 「함께하는 FTA」, 통권 제46호, 산업통상자원부, pp.12-15.
- 방호경·이서영(2015),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협력방향: 통상·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오늘의 세계경제」, 제15권 제32호, KIEP, pp.1-13.
- 배경화(2014),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지원정책 실태와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5),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전략 논의-아시안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글로벌 가치사슬 국제워크숍개최,” 「보도자료」, pp.1-4.
- 송병준(2014), “FTA환경하에서의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IT기반 FTA특화 비즈니스모델 구축 방안,” 「이슈리포트 2014-1」, pp.1-17.
- 윤창인(2006), 「기업국제화 개념정립 측정지표 개발 및 국제비교」, 중소기업연구원.
- APEC중소기업혁신센터(2014), “2014년 APEC중소기업혁신센터사업추진계획(안),” pp.1-21.
- 이재우·김영석·오경일·이윤관·김중호(2015), 「2015년 세계경제 이슈 및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이준구(2013), “휴대전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고도화,”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pp.4-14.
- 이준호(2013), “글로벌가치사슬의 확산과 창조경제시대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제50호, pp.1-16.

- 이준호·김종일(2007),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과제,” 「뉴브리지연구 07-01」, 중소기업연구원, pp.7-8.
- 이준호·송창석·이춘우(2013), “글로벌가치사슬 편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제,” 「기본연구 13-11」, 중소기업연구원, pp.1-149.
- 정민정·최정인(2016), “제19대 국회 국제법 관련 채택결의안 현황과 효과성 강화 방안,” 「현안보고서」, Vol.291, 국회입법조사처, pp.1-106.
- 정현태·전현철·송민정·전수진·류기훈·곽기호·김철희(2014), 「2014년 IT산업 7대 메가트렌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진흥구(2015), “한국의 FTA 체결전략상 농수산물부문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0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pp.161-189.
- 최정은(2014), “글로벌 공급체인의 확대 및 교역패턴 변화,” 「해외경제포커스 제2014-21호」, 한국은행, pp.1-15.
- 한국은행(2014), “해외경제포커스,” 제2014-13호, 한국은행, pp.1-52.
- 藤田哲雄(2015), “グローバルバリューチェーンの展開とイノベーション政策の方向性—アジア企業の競争力向上にどのように立ち向かうべきか—,” 「JRIレビュー」, Vol.5 No.24, pp.95-114.
- 木村達也(2003), “わが国の加工組立製造業におけるスマイルカーブ化現象—検証と対応,” 「研究レポート」, 第167号, 富士通総研経済研究所, pp.1-43.
- 服部信司(2011), “T P P 参加問題と日本農業・日本経済,” 「農村と都市をむすぶ」, 全農林労働組合.
- 三菱総合研究所(2012), “グローバル・バリュー・チェーン分析に関する調査研究”, 平成23年度総合調査研究, pp.1-143.
- ADB(2003),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3: Competitiveness in Developing Asia*, Manila: ADB.
- Ali-Yrkkö, J., Rouvinen, P., Seppälä, T. and Ylä-Anttila, P.(2011), “Who Captures Value in Global Supply Chains? Case Nokia N95 Smartphone,” *Journal of Industry, Competition and Trade*, September, Vol.11 No.3, pp.263-278.
- Anderson, M. and J. Mohs(2011),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An Assessment of World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Economics*, Vol.3 No.1, pp.109-156.
- Balassa, B.(1961),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Baldwin, R.(2006),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s

-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The World Economy*, Vol.29 No.11, pp.1451-1518.
- Baldwin, R.(2013), “Global Supply Chains, Why They Emerged, Why They Matter, and Where They Are Going,” in Deborah Elms and Patrick Low(eds.), *Global Value Chains in a Changing World*, World Trade Organization, pp.13-69.
- Bartels, L.(2012),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R. Wolfrum (ed.), *The Max Plan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Bhagwati, Jagdish N.(1995), “US Trade Policy: The Infatuation with Free Trade Areas,” in J. Bhagwati and A. O. Kruger, *The Dangerous Drift to the AEI Press*, pp.1-18
- Christian M. and G. Gereffi(2010), “The Marketing and Distribution of Fast Food,” *Contemporary Endocrinology*, New York: Springer, pp.439-450.
- de Backer, K. and Yamano, N.(2012), “International Comparative Evidence on Global Value Chain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 2012/3, Paris: OECD, pp.1-30.
- de Voorde, Eddy Van and Lam, J.S.L.(2011), “Scenario Analysis for Supply Chain Integration in Container Shipping,” *Maritime Policy and Management*, Vol.38, No.7, pp.705-725.
- Elms, D. K.(2014), “Asia-Pacific Mega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Fostering Global Supply Chains?,” Paper Presented at the 2014 APEC Workshop on Advancing REI in the GVC Era Taipei, September 29, pp.1-16.
- Gereffi, G. and O. Memedovic(2003), “The Global Apparel Value Chain : What Prospects for Upgrading by Developing Countries?(Report),” Vienna: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pp.1-36.
- Gereffi, G. and Sturgeon, T.(2013), “Global Value Chain-Oriented Industrial Policy: The Role of Emerging Economies,” in D. Elms and P. Low (eds.), *Global Value Chains in a Changing World*,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pp.329-360.
- Ishige, H.(2013), “Global Supply Chains and Region-wide FTAs,” Power Point Presentation, February 4, JETRO, pp.1-18.
- Ivarsson, I. and C. G. Alvstam(2010), “Supplier Upgrading in the Home furnishing Value Chain: An Empirical Study of IKEA Sourcing in China and South East Asia,” *World Development*, Vol.38 No.11, pp.1575-1587.

- Kaplinsky, R. and Morris, M.(2000), "Handbook for Value Chain Research," Prepared for the IDRC,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Sussex, pp.1-7.
- Koopman, R., Zhi Wang and Shang-jin Wei(2013), "Tracing Value-Added and Double Counting in Gross Expor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104 No.2, pp.459-494.
- Kraemer, K. L., Dedrick, J. and Linden, G.(2011), "Capturing Value in Global Networks: Apple's iPad and iPhone," Working Paper, University of Irvin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p.1-11.
- Lim, C. L., D. Elms and P. Low(ed.)(2011),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 Quest for a Twenty-First Century Trade Agre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hews, J. A. and D.S. Cho(2000), *Tiger Technology: the Creation of Semiconductor Industry in East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roudot, S.(2013), "Global Value Chains and the Network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East Asia," Paper Presented at the KIEP-ECIPE-GSIS Conference on Free Trade Agreements: Revisiting the Reality of FTA Competi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ay 23.
- Nakatomi, Michitaka(2014), "How can Japan and the EU work Together in the Era of Mega FTAs? : Toward Establishing Global Value Chain Governance,"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RIETI), pp.1-11.
- OECD(2007a), "OECD Global Conference on Enhancing the Role of Small &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n Global Value Chains," 31 May-1 June 2007, Tokyo, Japan.
- OECD(2007b), "Moving Up the Value Chain : Staying Competitive in the Global Economy-Main Findings," pp.1-27.
- OECD · WTO · UNCTAD(2013), "Implications of Global Value Chains for Trade, Investment, Development and Jobs."
- Park, A., Gaurav, Nayyar and Patrick Low(2013), "Supply Chain Perspectives and Issues," World Trade Organization, pp.1-234.
- Sturgeon T. J. and G. Linden(2011), "Learning and Earning in Global Value Chains: Lessons in Supplier Competence Building in East Asia," M. Kawakami and T. J. Sturgeon ed., *The Dynamics of Local Learning in Global Value Chains*, IDE-JETRO.
- William M. and D. Winkler(2010), "Trade, Crisis, and Recovery: Restructuring Global

- Value Chains,” O. Cattaneo, G. Gereffi and C. Staritz ed., *Global Value Chains in a Postcrisis World*, World Bank, pp.1-40.
- 금동화(2014) “[시론] 소재산업 가치사슬 ‘스마일 커브’로 바꾸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42502012351607030
- 김태균(2015), “박대통령, 수준높고 포괄적인 아태자유무역지대 추진 요청,”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_cd=2014111100208
- 뉴스퀘어(2015), “뉴노멀,” <http://www.newsquare.kr/issues/stories>
- 산업통상자원부(2016), “FTA 추진현황,” <http://fta.go.kr/main/situation/kfta/ov/>.
- 석근영(2015), “글로벌 가치사슬과 고속런 일자리의 변화, 산업기술정책포커스,” KIAT, pp.1-5. http://www.itfind.or.kr/itfind/periodical/viewPublication.htm?identifier=02-001-151027-000013&classCode=B_UGN_192
- 안병익(2014), “융합의 문화 ‘스마일 커브,’”
http://www.gsine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board_data
- 윤태형(2015), “박대통령 APEC 성과는...미중균형·선진-개도국 가교·APEC 유치,”
<http://news1.kr/articles/?2493150>
- 이광석(2015), “2025-한국 개최 정상회의, 박대통령 포용적 성장,”
<http://news8080.com/news/view.html?key=%B1%B9%C1%A6&smode=1&page=1§ion=1&category=4&no=2026>
- 중소기업진흥공단(2012), “고비즈코리아” 확대 개편, 2016년 9월까지 ; 정부, 올해 신시장 개척·수출 확대 등 중점-IT는 아이뉴스24,”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g...
- 최종락(2016.3.9.), “코트라, 한미FTA 활용 5계명 제시,” 중소기업뉴스,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28520>
- 티뉴스와이어(2015), “G20 통상장관 세계무역 성장세 회복방안 논의-산업부 문재도차관 제3차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 <http://tnewswire.com/62341>
- 財務省(2015), “經濟連携協定(EPA),” https://www.mof.go.jp/customs_tariff/trade/international/epa/
- ウイキペディア(2016), “經濟連携協定,” <https://ja.wikipedia.org/wiki/>
- Chaitravi’s Blog(2010), “The Smiling Curve: Stan Shih,”
<https://chaitravi.wordpress.com/2010/02/10/the-smiling-curve-stan-shih/>
- Maney, Kevin(2015), “Meet Kevin Ashton, Father of the Internet of Things,”
<http://www.newsweek.com/2015/03/06/meet-kevin-ashton-father-internet-things-308763.html>

- OECD(2013), "Trade Policy Implications of Global Value Chains,"
http://www.oecd.org/sti/ind/Trade_Policy_Implications_May_2013.pdf
- Singapore Government(2014), "Overview of New Zealand(ANZSCEP),"
http://www.fta.gov.sg/fta_anzscep.asp?hl=9
- UNCTAD(2015a), "FDI inflows, by region and economy, 1990-2014," <http://unctad.org/en/Pages/DIAE/World%20Investment%20Report/Annex-Tables.aspx>
- UNCTAD(2015b),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Reforming International Investment Governance," 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wir2015_en.pdf
- WTO(2013), "Changing features of global value chains,"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id4tradeglobalvalue13_part1_e.pdf
- WTO(2014),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4,"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tics_e/its2014_e/its2014_e.pdf
- WTO(2015), "Reciprocal trade agreements between two or more partners," WTO, Trade Topics,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Regional trade agreements,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 WTO(2016a), "Understanding the WTO: The Organization,"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
- WTO(2016b), "Regional trade agreement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 WTO(2016c), "Evolution of RTAs in the world, 1948-2016,"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fac_e.htm
- WTO(2016d),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WTO releases new statistical profiles on global value chains,"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6_e/stat_28jan16_e.htm

A Study on the Promotion Plans of Global Value Chain according to the FTA's Enlargement

Myong-Sop Pak

Nak-Hyun Han

Eun-Chae Kim

Abstract

As the WTO · DDA continues to stagnate, mega FTAs such as the TPP will likely play the leading role in rule-making of trade for some time to come, creating a 'spaghetti bowl' of trade rules. FTAs, notably high-standard and broad-based regional or mega-FTAs, are the appropriate means to achieve this objective, because they cover many of the policy measures that are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value chains(GVC). The highest quality FTAs are increasingly adding new features like regulatory harmonization that may also foster GVC growth in partner countries. Complementary relationships among markets along value chains, involving both goods and services, also complicate analysis.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when thinking about policy, since the traditional tendency to think about policies and regulate markets in unconnected silos can lead to unintended and undesirable result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s of FTAs to determine which are more likely to push this latest wave of globalization further and faster, and explores the plans that are most helpful for GVC growth.

〈Key Words〉 WTO · DDA, FTA, GVC, Policy Measures